

앗시리아를 세계 제국으로 만든 개혁가: Tiglath-Pileser III(745-727 BCE)의 혁신

군사 및 행정 체계의 현대화



상비군 체제(Kisir Sharruti) 확립

농번기 때만 소집되던 민병대를 일년내내 훈련받는 직업 군인 체제로 전환



전문 병과 통합 및 새로운 공성 전술

기병대와 공병 등 병과를 세분화하고 거대한 공성퇴를 운용하여 포위 중심의 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전술로 변화



중앙집권적 속주 시스템과 역참제도

정복한 앗시리아 왕이 직접 임명한 총독을 파견하고, 신속한 명령,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포장도로를 만들고 전달 시스템 구축



이전 시대와 디글랏-빌레셀 3세 시대의 근본적인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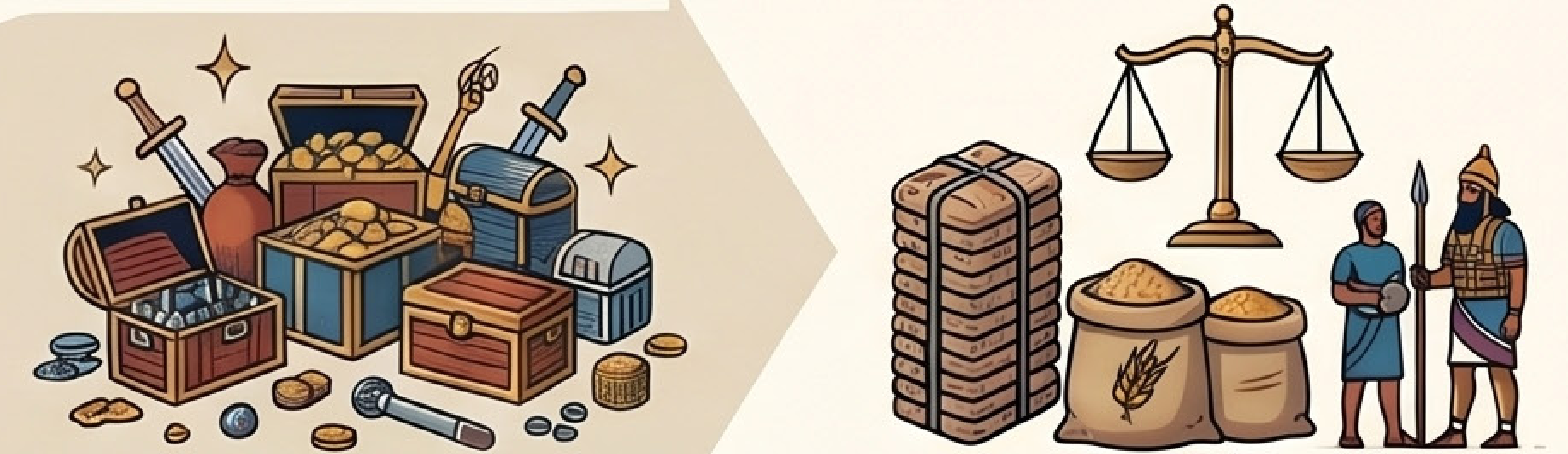
이전 시대	디글랏-빌레셀 3세 시대
 <p>전쟁 때 구성되는 민병대</p>	 <p>항상 유지되는 직업 상비군</p>
 <p>속국 왕을 통한 간접통치</p>	 <p>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p>
 <p>전쟁 후 일시적 약탈</p>	 <p>매년 정기적인 예산제(세금) 도입</p>

제국 통치 전략 및 경제 개혁



강제 이주 정책

피정복민을 교차 이주시켜 반란 의지를 꺾고 앗시리아 신민으로 동화시키는 정책



조공에서 정기적인 세금으로의 전환

부정기적인 약탈 대신 토지세(Iiku)를 도입하여 국가 운영 상시 재원을 확보



표준 도량형 도입 및 행정 기록 표준화

제국 전역의 무게와 부피 단위를 통일하고 조세 기록을 표준화하여 세수 증대

